

2023 춘천시 대중교통 간담회

청소년과 시민버스 대표의 솔직토크 결과보고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을 만들고 추진해가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입니다.

1 운영목적

- 청소년들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정책,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권익증진 도모
- 당사자 중심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시의 청소년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토론의 장 마련

2 운영방향

- 청소년과 시민버스대표, 춘천시대중교통추진단장 등 시민버스 실무자들과의 만남으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청소년 버스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
- 1:1 질문과 답변의 방법을 통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들을 수 있도록 진행
- 청소년 버스 정책뿐만 아니라 청소년 관점에서 바라 본 시민버스의 다양한 운영 모습까지 논의

3 운영개요

- 주 제 : 청소년이 행복한 춘천 버스 만들기
- 일 시 : 2023. 08. 27.(일) 14:00~16:00
- 장 소 : 춘천 시민버스 회의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공단로 98)
- 대 상 : 춘천시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9명 및 관계자 총 20명
- 내 용 : - 청소년이 시민버스 대표에게 직접 묻는다 (1:1 질의 응답방식)
- 청소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한다.
- 주 관 : 춘천시청소년수련관

- 주 최 : 언론협동조합 춘천사람들
- 협 찬 : 춘천시민버스

4 세부운영계획

시간(순)		내용	비고
13:50~14:00	10'	참가자 접수 및 인원확인	
14:00~14:05	5'	참석자 소개	이원영 관장
14:05~14:10	5'	간담회 취지 소개	춘천사람들 전홍우 이사장
14:10~14:13	10'	인사말	춘천시대중교통추진단 홍승표 단장
14:13~14:23	3'	춘천시민버스 연혁 및 소개	춘천시민버스 강연술 대표이사
14:23~15:50	87'	-청소년이 직접 시민대표에게 묻는다 - 청소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한다	춘천시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
15:50~16:00	10'	마무리 및 단체사진 촬영	참가자 모두

○ 토론내용

조	질의	답변
1	일부 노선은 등하교 시간에 손잡이도 못 잡을 만큼 승객이 꽉 찬다. 배차 간격이 길어서 버스를 놓치면 오래 기다려야 해서 더 그렇다. 등하교 시간의 배차 간격을 줄일 수 없는가?	현재 스쿨버스를 운영 준비중이며 늦어도 11 월중에는 학생들의 하교를 위한 스쿨버스를 운행한다. 학교 한 곳당 2~3대를 추가 배치 하여 등하교 시간의 혼잡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2	등하교 및 야간자율학습 시간 등 학교별 차이가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학교별 등교시간이 다른 것을 인지하고 있다. 학교별 맞춤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율 학습에 불편을 느끼지 못하도록 노선과 지역을 파악하겠다.
3	청소년버스 정기권이나 교통비 환급 등을 도입할 계획은 없는가?	정기권등 청소년 요금 할인 정책은 타시군에서 일부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춘천시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지만 당장은 어렵고 스쿨버스부터 일단 제대로 안착 시킬 계획이다.

4	버스 승무원의 운전습관이 여전히 아쉽다. 운행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 등을 잘 지키지 않는 것 같다.	교통법규나 민원은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중 하나이다. 승무원 교육은 꾸준히 시키고 있다. 당장에 큰 변화를 기대할 순 없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니 지켜봐 주길 바라며 언제든지 민원을 넣어주길 바란다.
5	승객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 2층버스 도입은 어렵나?	2층 버스 도입도 검토를 했었다. 다만 생각보다 효율적이지 않았다,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운영을 접었다. 수리비가 일반 버스의 2배 이상이 들어서 부품 수리와 수급이 어렵다.
6	밤 늦게 공부를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종종 막차를 놓친다. 이에 대안은 없는가?	막차 시간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 스터디 카페에서도 공부하거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어느 곳에 많은지 어떤 노선이 막차시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한지 데이터가 없다. 데이터를 조사 해서 알려줄 수 있다면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

○ 활동사진



(춘천사람들) 임우영약

춘천장례식장

"진심을 다해 가족처럼
별하게 모시겠습니다."

033)256-4444 동면 소양강로 409

춘천시민의 신문

춘천사람들

책의 영지, 산호의 섬
책방 바라다리아

Barataria

당간저주길74번길 5
☎ 0507-1325-3180

“청소년 버스 정기권 도입하자”

춘천YMCA, 정기권 도입 제안 눈길

청주·전주·화성 등 타 지자체도 시민 호응 높아

최근 춘천YMCA(사무총장 임우영)가 춘천시에 청소년 버스 정기권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눈길을 끌고 있다.

춘천YMCA 측은 △청소년은 대중교통 이용 요건을 절약하고 △버스회사는 이용자를 증가시켜 공차 운행 횟수를 줄이고 △지자체는 교통복지 실현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청소년 버스 정기권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지난달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교통비 부담 커
청소년 정기권 제도 도입의 가장 큰 이유는 교통비 부담 경감이다. 교통비라고 하면 어른들에게는 톨돈으로 여길 수 있지만 청소년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하나은행이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월평균 용돈은 6만4천 원 중학생은 4만 원 초중등학교 고학년생은 2만2천300원 초등학교 저학년생은 1만7천500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춘천시의 교통비를 살펴보면 중학생의 경우 버스요금만 현금으로 1천360원, 교통카드로 1천200

원이다. 등하교만 계산(1일 2회×20일) 하더라도 한 달에 현금으로 5만4천400원, 교통카드로 4만8천400원이다. 교통비가 용돈에 포함되는지는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 사무총장은 “어른들의 생각과는 달리 교통비가 실제 청소년 이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며 “2019년 1천800여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피계통과 약사명동에서 여가 활동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동이 용이한 지역이 이곳밖에 없기 때문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사무총장은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활동반경이 줄어들면 다양한 체험·문화·예술 활동의 기회를 놓치는 등 사회·문화·교육 문제가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 교통복지 및 이동권 확대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계획은 △아동의 참여 △놀이와 여가 공간 △



춘천의 한 고등학교 하교 시간, 학생들을 태우기 위한 차량들이 길게 줄 서 있다.

자연환경 확보 △이동성 개선을 골자로 한다. 이때 아동의 독립 이동권은 ‘어린아들이 어른들의 감독 없이 동네나 도시를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진 대도시와 그렇지 않은 중소도시를 비교해 보면 이동권의 차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에는 버스가 지하철도를 타고 삼삼오오 친구들과 이동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지만, 중소도시의 청소년들은 대부분 ‘엄마 차’ 혹은 ‘빠 차’에 의존해 다닐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해 춘천시청소년참여위원회가

실시한 교통수단 실태조사에 따르면 50%에 가까운 학생들이 등교 시 부모님의 차를 이용한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자유로운 이동은 커녕 거꾸로 등교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다. 춘천의 경우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학원 차량을 통해 등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마저도 이번 2학기부터 이용이 어려워졌다. 여객운수법에 따라 영입용 차량으로 허가받지 않는 학원 등교 차량은 운행이 금지된 것. 현재 맘카페 등에는 현재 등교 수단을 고민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는 상태다. 특히 당장 스쿨버스 이용이 어려운 경

우나 다차녀로 직접 모두 등교시켜야 하는 경우, 매우 곤란한 처지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버스 정기권, ‘지속가능한 방법’

청소년 버스 정기권 제도나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시민들의 호응을 받는 도시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청주·전주·화성·전주·충남도 등이다. 청소년 이동권도 확보하고 탄소배출도 줄인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무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한다. 춘천에서도 2012년 전국 최초로 등교급행버스(S버스)를 운영해 많은 호응을 받았지만, 비용 문제로 결국 2019년 폐지됐다.

이 사무총장은 “청소년 버스 정기권 도입은 할인을 통해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절충안이라고 생각해 제안서를 제출했다”면서 “춘천시가 교육과 대중교통에 관심을 쏟고 있는 만큼 청소년 버스 정기권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부탁했다.

홍석천 기자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2023. 11. 24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 (국대)

대상업체 | 시흥점(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대형마트, 대학우유점, 제과점, 도매 및 소매점 등)
대상업체 | 1회용(컵, 숟가락, 나무젓가락, 어부시계, 수거포크, 니퍼, 낚시사이드, 낚시터, 낚시, 낚시용품, 낚시용품, 낚시용품 등)

춘천시 자원순환팀 ☎033-250-4343

초록마켓 Cafe

010.2898.7938

과일·과일선물·잡과일·지역·배출

강원 춘천시 중흥길 90-1층 (남춘천중학교 정문앞)

근마린

010.9060.6735

피계동 우육점(KBS 건너편)

티앤비여행사 TNB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길, 저희 여행사가 동행하겠습니다

▶ **여행** | 당일출발/도로 온천여행 3일(하루) 출발 599,000 ~ 899,000원까지

▶ **항공** | 코타카타기(부산) 특급 호텔 5일(하루) 출발 599,000 ~ 909,000원까지

▶ **여행** | 서울(경기) 8월(11월 20일) / 12월 25일 2,990,000원

여행사업부 252-3352 | 춘천 사업부 252-3334 / 공지로 133(석사동) 1층

대중교통 간담회

청소년과 시민버스 대표의 솔직 토크

대중교통이 불편한 청소년들, 춘천의 청소년들이 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일시 : 8월 27일(일) 오후 2시~4시
장소 : 춘천시민버스 회의실 (춘천시 동면 공단로 98)

주최 : 춘천사람들
주관 : 춘천시청소년수련관 꿈마루
문의 : 033-244-1387 (꿈마루)

‘생태도시 춘천 시민모임’

을 위한 **토론회**

[발제 1] 생태도시를 위한 시민과학자의 역할
- 영형철 한강사회적협동조합 대표

[발제 2] 춘천의 생태 현황과 시민모임의 활동 방향
- 조성원 강원자연환경연구소 소장

일시 : 8월 23일(수) 저녁 7~9시
장소 : 춘천사람들 교육실

* 생태에 관심이 있는 춘천시민이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문의] 010-4981-6433

www.chunsa.kr
춘천사람들



“청소년들 안목에 깜짝 놀랐다”

지난달 27일, 춘천시민버스 대표와 청소년 간담회
배차·정기권·안전운전 등 의견 '붐' 이뤄
시민버스·대중교통지원단, “스쿨버스 도입으로 불편 해소” 약속

지역 청소년들이 평소 시민버스를 이용하며 아쉬웠던 점들을 마음껏 이야기하고 시민버스 발전에 도움될 만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자리가 열렸다.

지난 27일, 춘천시민버스 회의실에서 ‘청소년과 시민버스 대표의 솔직 토크’라는 제목으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청소년이 행복한 춘천 버스 만들기’란 주제로, 언론협동조합 춘천사람들이 주최하고 춘천시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한 행사였다. 강연술(춘천시민버스 대표이사 등 시민버스 주요 관계자와 흡승부 춘천시 대중교통추진단 단장, 전승우 언론협동조합 춘천사람들 이사장, 어영환 춘천시청소년수련관 관장 등이 참석했다. 청소년을 대표해서는 조재민(간원고), 김인성(문의반-이선우(성수고), 이지환(춘천고) 등 고교생 9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나온 주요 질문과 답변은 다음과 같다.

일부 노선은 등하교 시간에 손잡이도 못 붙일 만큼 승객이 꼭 다. 배차 간격이 길어서 버스를 놓치면 오래 기다려야 해서 더 그렇다. 등하교 시간의

배차 간격을 줄일 수 없는가?

그 문제는 스쿨버스로 해소될 수 있다. 빠른편 10월 중 늦어도 11월에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한 스쿨버스가 운행될 예정이다. 학교 한 곳 당 한두 대 정도가 등하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운행될 것이다. 현재 밀그림은 나왔는데 혹시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지 앞으로 각 학교와 관계 기관 등과 의견을 나누며 교차 검증해야 한다. 홍보도 필요하고 버스의 어떤 여러 가지 준비도 필요해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대인 수 능력이 고려해서 차질없이 준비하겠다.

등하교 및 야간자율학습시간 등 학교별 차이가 반영되어야 한다.

물론이다. 각 학교가 등교 시간만 같고 많은 것이 다르다. 그래서 학교별 맞춤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교통이 불편해서 자율학습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어느 지역에 학생들이 많이 사는지 파악하여 노선을 할 때도 반영할 것이다. 또 한샘고처럼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명문은 꼭 경우할 것이다. 광학 때는 어떻게 할지도 더 반영할 것이다.

청소년 버스 정기권이나 교통비 환급 등을 도입할 계획은 없나?

정기권 등 청소년 요금 할인 정책은 타 시군에서 일부 하는 데가 있다. 춘천시도 큰 관심이 있고 내부적으로 검토도 했지만, 세금이 많이 들어가기에 고려할 것이 많다. 당장은 어렵고 장기적인 과제다. 우선 스쿨버스부터 제대로 안착시키고 하고 한다.

버스 승무원 안전순찰이 여전히 어렵다. 버스가 멈춘 후 승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신하게 하차를 하거나 빈대로 탑승 후 자리에 앉은 걸 확인하고 나서 출발하는 등 환적을 잘 지키지 않는다.

교통법규나 민원을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다. 승무원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다. 때로는 징계도 한다. 과거 불규칙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하던 시절에 의욕 상실로 생긴 습관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북장부터 근무해도, 운행속도 60km 미만 준수 등 과거보다 많이 좋아진 것도 많다. 준공정제 안착 후 승무원과 마음을 맞춰가며 신뢰가 쌓아가는 과정에 있다. 조만간 더 많이 개선될 것이다. 특히 각 버스 상황을 실시간 CCTV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원에 적극적으로 응대하면서도 혹시나 승무원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살피는 것도 잊지 않았다.



‘청소년과 시민버스 대표의 솔직 토크’에서 열린 대화가 오갔다.

승객이 많이 몰리는 시간과 노선에 2층 버스를 도입하면 어떨까?

2층 버스 도입을 검토했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효율적이지 않다. 서울을 제외하고 다른 지자체 대부분이 운영을 잠갔다. 독일 등 해외로부터 수입해야 하는데 차량 가격이 일반 버스의 2배가 넘고 고장이 나면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밤늦게 공부하거나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 종종 막차를 놓친다.

막차 시간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거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들이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아직 데이터는 없지만, 학생 수요와 아르바이트 밀집 지역 등 데이터가 확보되면 야간에 일부 차량을 ‘마감버스’

개념으로 도입할 만하다.

청소년들이 생활에서 직접 겪어오거나 생생한 질문은 강 대표이사도 좋은 질문 등은 시종 진지하고 친절하게 답했다. 청소년들은 이외에도 △오리바드 요금제 등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해서 특정 시간 혼잡을 줄이고 수송분담률을 높이자 △혼잡 시간에 노약자를 위한 반자리 생서를 도입하자 등 다양한 질문과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강 대표는 “청소년들 안목에 깜짝 놀랐다. 앞으로 이런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하여 청소년들이 교통이 불편해서 공부 못하거나 즐거운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영민 기자

춘천 대중교통 간담회 참가 후기

간담회 준비하며 대중교통에 대해 더 많이 공부
춘천시의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 할 말이 많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소식을 듣고 참가를 신청했다. 간담회에 참가하기 위해 많은 자료를 찾아보

며 대중교통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청소년들도 나와 같은 문제를 겪지 않게 하려면 평소 생각해왔던 대중교통의 문제점에 대해 잘 정리하고 다듬어야 청소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는 생각에 더 열심히 준비했다.

간담회에 참가했던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듣고 내가 미리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알게 되었다. 간담회에서 거론된 여러 문제점이 꼭 해결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다음에 또 어떤 간담회가 마련되면 청소년의 눈으로 여러 가지 질문이나 개선점 등 좋은 생각이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서로의 생각이 더해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이후에도 청소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자주 마련되면 좋겠다. 청소년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많고 또 뭐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김병진(성수여고2)

스쿨버스 운행 등 터놓고 이야기 하는 뜻깊은 자리
청소년들에게 대중교통, 그중에서도 버스는 특히 더 효율적인 이동수단이다. 등교할 때나 하교할 때, 그리고 야간자율학습이 끝나고서도 버스를 타고 집에 간다. 그렇기에 버스에 대한 관심은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번 간담회는 청소년들이 버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점들을 직접 터놓고 스쿨버스 운행 등 그동안 청소년들이 불편을 느꼈던 점들을 주제로 춘천시민버스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뜻깊은 자리였다. 춘천시민버스와 춘천시대중교통지원단에서 청소년들이 바라는 점들이 무엇인지 귀를 기

울어 준 것만으로도 이번 간담회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더 많아지면 좋겠다.

유이린(성수고2)

문제점 개선하려는 춘천시민버스의 의지에 기대감 커
춘천 시민버스의 현재 실태에 관해 각기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 질의응답을 가져보았다.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버스와 관련한 상황을 가장 먼저 접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생각이 많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에 깊이 공감해 주며 주의 깊게 경청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려는 모습 때문에 더 편하고 자신 있게 의견을 말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청소년들이 편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각 학교 별로 스쿨버스를 운영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해 주었는데, 아직도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들이 많아서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춘천시민버스가 여러 문제를 개선할 의지를 가진 것 같아 기대가 된다.

이번 간담회가 앞으로는 자주 진행되면 춘천시민버스의 전망은 확실히 밝은 것이다. 이런 소문의 자리가 더 자주 마련되면 좋겠다고 바람이다.

이민환(춘천고2)

디자인&인쇄포털
춘천사람들

출판인쇄
033) 262-6217

팜플렛 | 포스터 | 단행본 | 소식지
브로슈어 | 전단 | 논문집 | 교지